

사우디·UAE와 원전 협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 점검회의 개최

산업부 장관, 사우디 상용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전면 가동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경제협력사업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기로 함에 따라 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2월 14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한진 부사장, 한수원 부사장, 원자력연구원 원장, 무역협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무역정보통신(KTINet) 사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부장,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와 추진하고 있는 원전 등 에너지 및 산업·무역·투자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2월 24~2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을 만나기로 확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은 협의중라고 하면서,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의 핵심은 사우디 상용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 및 아랍에미리트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방한 등으로 한-아랍에미리트(UAE)가 전면적·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양국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한 만큼, 바라카 원전의 차질없는 준공 협력 등을 계기로 이러한 국면 전환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사우디 상용 원전 수주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원전 수주는 원전의 경제성·기술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하는 만큼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는 1차로 작년 12월 말 각국이 제출한 상용 원전에 대한 기술정보요구서(RFI) 답변서를 토대로 올해 3~4월경 예비사업자(Short-List)를 발표하고 2018년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우디 수주 지원을 단계적으로 본격화하면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틀 내에서 한전·한수원·건설시공사·기자재업체 등으로 구성된 '사우디 원전수주팀 코리아'를 가동하고 있으며, 산업부 내에도 사우디 원전수주지원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소형 원자로 '스마트' 건설 지원 민관 합동 TF 출범



'스마트 건설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고위급 TF 발족회'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왼쪽 여섯 번째)이 주재한 가운데 1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MART 건설 전 상세 설계(PPE)가 실제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을 위해 「SMART 건설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고위급 TF(SMART고위급 TF)」를 구성하고 1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장, 오영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등 공무원 5명과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전영택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등 기관·기업 관계자 6명이 참여했다.

그 동안 한국과 사우디는 공동으로 SMART 상세설계를 2015년 12월부터 진행하여 왔으며, 올해 11월 상세설계가 끝나면 SMART 2기를 사우디에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소형 원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왔다. SMART 고위급 TF는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말 상세설계 이후 사우디 SMART 건설 준비, 향후 제3국 수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산업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SMART 프로젝트는 사우디 비전2030(16.4월) 및 국가종합개혁안2020(16.6월)에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사우디의 중요 정책이며, 사우디는 스마트의 경제성과 수요 국가(중등)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건설 및 수출 단계에서는 한국의 산업계를 비롯한 범정부적 참여를 희망해 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우디에 SMART 2기 건설 시, 약 2조원의 경제적 효과 및 최대 약 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없는 사우디에 국내 원전 관련 산업체의 진출, 원자력 안전 규

제 시스템 수출 등 새로운 해외 원자력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고 나아가 대형 상용 원전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진규 차관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SMART의 성공적인 건설과 향후 소형원전 시장 추가 진출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산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사우디 간 신뢰 강화와 한 차원 높은 원자력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고리 2호기, 준공 이후 1,682일 무정지 달성

1,682일간 41,672GWh 전력 생산, 부산시 2년 사용량



신고리 1, 2호기 전경(사진 왼쪽 2호기, 오른쪽 1호기)

신고리 2호기가 2012년 7월 20일 준공 이후 연속 4주기(1,682일) 동안 단 한 번의 고장정지 없이 안전 운전을 달성했다. 신고리 2호기는 2월 20일 오전 10시경 발전을 중단, 70여일간의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신고리 2호기가 생산한 전력량은 2016년 기준 부산시 전체 2년 사용 전력량에 해당하는 41,672GWh로, 국가 전력 수급에 크게 기여했다.

한수원은 이번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연료 교체를 비롯해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 검사와 주요 기기 계통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조치 등 각종 기기 정비 및 설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희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은 “건설 후 원전 운영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한 두 차례의 고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신고리 2호기는 국내 최초로 준공 직후부터 연속 4주기 동안 고장정지 없이 안전 운전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2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5월 초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건설 예정지역 인사 일행 신고리 원전 방문 한국형원전 건설 지지, 한국과 한수원에 우호적



체코의 비체슬라프 요나스(Vitezslav Jonas)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체코 방문단이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하였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협의회 일행 7명이 2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신고리 3,4호기 발전소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건설 역량을 확인했다. 두코바니는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예정 지역이다.

크리스탈(Kristal) 두코바니 시장은 “한국형원전의 안전성과 한수원의 원전 건설 역량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체코에서의 한국형원전 건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코 두코바니 지역은 한국과 한수원에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체코 방문단은 신고리 원전을 방문하기 전인 19일에는 한수원 본사 종합상황실을 견학해 원전 안전관리 태세를 확인했고, 21일에는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제작 능력을 확인했다.

체코 정부는 올해 안에 신규원전사업 입찰안내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체코에서 기자재 공급망 구축,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체코 원전 수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정비 현장 확인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월 20일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정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과 함께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 정비 현장(내부 철판 15단, 높이 39.43m)에서 실제 보수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에게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강 위원장은 영광·고창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임원진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고, 원전 안전규제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위원장은 향후에도 원전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며, 실제 원자력 현장의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여 원자력 규제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수원,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준공 공기업과 중소기업간 해외 동반 진출의 모범 사례

한국수력원자력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950km 떨어진 다출라 지역에 건설한 30MW 규모의 차멜리야 수력발전소가 2월 10일 준공되었다. 네팔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은 976MW로, 차멜리야 수력발전소는 앞으로 약 3%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한수원이 해외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네팔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한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주관사인 한수원(주기기 공급)과 국내 중소기업인 화천플랜트(보조기기 공급), 세안이엔씨(송전선로 건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5월 건설에 착수, 그 동안 발주처인 네팔전력청과 토건계약자(중국업체)간 계약 분쟁, 열악한 건설 여건 등으로 공사 기간이 수 차례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당초 준공이 예정됐던 2011년 12월을 넘겨 약 9년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